

광주일보·조선대병원 공동기획
암 아는만큼 이긴다

<12> 뇌종양

“1000명상 목표 건물 신·증축
환경 개선·의료질 향상 노력”

양성 종양, 수술로 90%까지 완치

두통→간질 발작→구토→손발 마비 증상
조기발견 중요...종양 특성따라 치료 달라

뇌종양으로 진단받으면 대부분의 환자
나 보호자 및 가족들이 매우 공포에 떨고
걱정 한다. 수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
정민이 가족들이 그랬다.

정민이는 갑작스런 구토와 더불어 걸음
을 비틀 비틀 걸었다. 갑작 놀란 정민이
엄마는 개인 병원 신경과를 찾아 뇌종양
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우리 병원을 방문
했다. 자기 공명 영상 촬영(MRI)를 통해
뇌종양이 슬플 부위를 누르면서 뇌압이
상승되어 구토를 하고 보행 장애가 있는
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뇌수술이 꼭 필요하며 그에 따른 합병
증 가능성을 이해하고 정민이 엄마는 수
술에 동의할 해 주었다. 수술실에 들어보
내면서 평평 울던 정민이 엄마를 기억한
다. 수술은 다행히 합병증이 없이 마무리
되었고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요법을 잘 견
뎌 내고 재발이 없는 상태로 지금은 공부
를 매우 잘하는 양지만 평범한 중학생
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. 덕분에 나도가
끔찍 나주에 사는 정민이 엄마 덕에 신선
한 과일을 자주 얻어먹는다.

뇌는 모든 부위가 특수한 기능을 갖고
있고 신경 세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.
그래서 뇌종양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는
더욱 크다. 지난 1년간 국내에서 뇌종양
진단을 받은 환자는 약 3000여명으로 흔
치 않은 병이다.

◇뇌종양 증상=뇌종양 환자들은 일반
적으로 두통과 간질 발작, 성격 변화, 물
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편마비 등의 증
상을 겪는다. 종양이 커지면서 뇌압이 올
라가면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. 뇌종양 증
상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대뇌의 종양부
에서 자라면 운동신경이 모여 있는 운동
영역이 있어서 반대 측의 손발이 마비된
다.

특히 왼쪽 뇌는 우성 반구이므로 대부
분에 언어중추가 있어 그 부위가 장애를
입으면 말을 잘 못하게 된다. 뇌종양 중
일부는 심한 뇌부종이 동반될 경우에는
생명 중추를 침범해 급사의 원인이 될 수

있다.하지만 뇌 기능이 다양한 만큼 증상
에 의한 조기 진단 또한 어렵다. 따라서
정기적인 MRI 검사가 뇌종양을 조기 진
단하는 길이다.

◇뇌종양 치료와 수술=뇌종양 수술은
첨단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혜택
을 가장 빨리 받아들여 급속도로 발전해
온 분야 중 하나이다. 각종 뇌종양 진단에
는 MRI, CT, MRS등의 방사선학적 최신
기법이 적용되며 다양한 방사선 동위원
소를 이용한 PET, 미세현미경 수술법, 네
비게이션 기구를 이용한 뇌항해기법, 감
마나이프 까지 가장 최첨단의 의료 기술
이 뇌종양의 치료에 이용된다. 하지만 뇌
종양은 현대 의학에서 아직까지도 난치
병으로 분류된다.

그 이유는 뇌는 신체 기능을 직접 관장
하는 중요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어, 뇌종
양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악성 종양의 경
우에는 아예 정상 조직과 경계가 불분명하
여 종양의 완전 적출 자체가 불가능하기
때문이다. 악성도가 높은 경우나 뇌의 중
요한 부위에 위치한 경우는 완전 절제가
힘든 경우도 있어 보조적인 치료법인 방
사선치료, 화학요법을 함께 시행한다. 이
경우에도 수술로 종양의 크기를 줄이면
종양수축 보조적인 치료법의 효과는 증
가하므로 수술적 치료는 가장 중요하
다고 할 수 있다.

수술로써 종양을 제거하거나 크기를
줄여줌으로써 종양에 의한 주변부의 신
경압박을 완화시키고 상승된 뇌압을 줄
여줌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
있다. 치료목적 이외에도 진단의 목적으
로도 수술요법이 적용될 수 있다.

방사선 검사에 의해 뇌종양이 밝혀지
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자동차에 쓰는 네
비게이션 기구를 뇌수술에 응용해 정확
한 뇌종양 부위에 주사침을 이용해 조직
의 일부만을 떼어내어 병리검사를 하는
생검을 하는 경우도 있다.

이렇게 생검을 하여 얻은 정확한 진단
(종양의 조직학적 특성)으로 치료 방침



김종규 조선대병원 뇌신경외과 교수가 27일 50대 뇌종양 환자에게 종양 조직 제거 수
술을 하고 있다.

을 결정한다. 일반인들이 선입견과 다르
게 양성 뇌종양의 치료율은 상당히 높다.
양성 종양일 경우 80~90%는 치료가 가
능하다.

양성 뇌종양도 전부 제거할 수 없는 경
우가 있다. 예를 들어 운동중추에 종양이
위치할 경우 종양을 완전 제거하면 반신
불수가 될 수 있어 종양의 일부만 제거하
기도 한다.

이처럼 수술을 할 때, 기능을 손상하지
않으면서 어디까지 적출해도 되는가 하
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.

최근에는 수술 기술과 더불어 뇌기능
을 감시하는 의료장비가 눈부시게 발달
하여 일반적으로 양성종양의 경우 치료
효과가 매우 좋다.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
경우에 따라서 환자를 깨워 놓은 상태에
서 환자와 이야기 하며 수술 하는 동안 환
자가 마비가 생기는지 말을 잘하는지 등

을 관찰하며 뇌종양을 제거 하는 수술도
시행한다.

한편 다른 장기의 암발생이 증가함에
따라 전이성 뇌종양도 15~20%정도로
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, 최근의 수술과
방사선수술로 경과가 좋으므로 적극적인
치료가 필요하다.

따라서 이러한 뇌종양을 효과적으로
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숙련
된 수술 기법뿐만 아니라 정밀한 수술
계획에 필요한 첨단
장비와 방사선 치
료, 화학 요법 등 복
합적인 치료 계획이
필요하다.

<조선대병원 뇌신경외과 김종규 교수>
/정리=채희종기자 chae@kwangju.co.kr



▲모바일 의료솔루션 도입
▲병원내 무선랜(와이
파이)망 구축
▲안드로이드 운영체제(OS) 기반 스
마트폰 공급 등의 프로젝
트를 12월부터 본격적으
로 시작해 이르면 2011년
1분기부터 U-헬스 서비
스를 시작할 예정이다. 뿐
만 아니라 현재 활용하고 있는 병원의 IT시스템인
전자무기록시스템(EMR), 처방정보전달시스템
(OCS) 및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(PACS) 등을
갤럭시S와 태블릿PC인 갤럭시탭에서도 조회하
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.

김 병원장은 “소셜 네트워크(Social Network)
시대에 맞게 병원 시스템도 변화하고 있다”며 “흐
름을 뒤쫓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선도하는 병원
을 만들고 싶다”고 말했다.

또한 “올해 처음으로 실시간 의료기관 인증평가
때문에 의료봉사활동이 다소 주춤했는데 2011년
에는 도서지역은 물론 산간지역 의료봉사활동을
더욱 열심히 해 지역민과 환자들의 마음속에 녹아
들 수 있는 대표 병원이 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김 병원장은 1986년 조선대 의과대학 교
수에 임명돼 캐나다 토론토대학병원에서 소화기
및 간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교육부
장, 진료부장, 부원장을 역임했다. 현재 미국 소화
기 학회 정회원과 대한내과학회, 대한 간 학회, 대
한 소화기 학회 등의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.

/채희종기자 chae@kwangju.co.kr

겨울철 특نه한 어깨관리법

운동전엔 반드시 15분간 스트레칭
통증 2주 이상 지속땀 병원 찾아야

평소 골프를 즐기는 김모씨(60). 라운딩을
하던 중 갑자기 어깨 통증이 시작됐다. 정씨는
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파스나 찜질로
해결해보려 했으나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지
속돼 병원을 찾았다.

특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병명은 ‘어깨힘
줄 과열 및 염증’이었다. 다치지도 않았는데
무슨 힘줄과열이냐고 대부분 의아해 하지만
어깨 힘줄은 혈액순환과 연관이 커 특히 요즘
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
필요하다.

여수 백병원 백창희 원장은 “운동 전에는
어깨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 반드시 충분
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”며 “출다고 움츠러
들지만 말고 약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통해 경
직된 어깨를 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 뒤,

운동에 들어가야 한다”고 말했다.

백 원장은 또 “2주 이상 어깨 통증이 계속될
때는 참지 말고 반드시 어깨관절 전문병원을
찾아 정밀검사를 하고 통증 원인부터 찾아야
하다”면서 “가깝고 쉬운 물리치료만 생각하지
 말고 60세 이상에서도 어깨통증이 있으면 먼
저 통증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그는 이어 “요즘처럼 추운 겨울, 건강한 어
깨관리를 위해 운동 전 20분 먼저 도착해서 충
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그는 이와 함께 “아침 저녁으로 산에 가면
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철봉에 먼저
매달리지 말고 혈액순환을 위해 기구들을 이
용, 어깨돌리기 운동을 해서 충분한 스트레칭
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”고 덧붙였다.

/채희종기자 chae@kwangju.co.kr

부작용 거의없이 피부 재생, 탄력 살리고 주름 개선

나이가 들수록 피부조직은 얇아지고 탄력을 잃
어간다. 이와 같은 노화현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피
부가 처지면서 뺨과 코 옆, 입주변 등에 잔주름이
생기기 시작한다.

여기에 또 하나의 노화현
상인 피부 건조증이 더해지면
잔주름이 더욱 악화된다. 물론
피부분이 어두워지고 탄력도
떨어진다.

피부의 섬유 조직 사이에 들
어있는 젤리 상태의 물질인 히
알루론산을 주입해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이며, 특
히 피부에 직접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피부를 재생
시켜 탄력과 잔주름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눈길을
끌고 있다.

히알루론산은 인체 내 성분으로 피부테스트
가 필요하지 않으며 수개월에 걸쳐 피부내에서 안
전하다. 이 때문에 최근 피부진피층에다 히알루론
산을 직접 주사함으로써 얼굴과 목에 생긴 주름을

개선하는 히알루론산 치료법이 인기를 끌고 있는
것.
히알루론산은 인체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하며, 모
든 살아있는 생물이 갖고 있는 점액질 물질로서 특

히알루론산이 줄어들어 피부분이 칙칙해지고 탄력이
사라지면서 노화현상이 진행 되는 것이다.
히알루론산 시술의 부작용으로는 주사침 구멍
감염우려와 약물에 의한 과민 반응(알레르기)이
있을 수도 있다.

히알루론산의 가장 큰 특징
은 인체 내 성분이라 부
작용이 거의
없으며, 주로
손등, 목 등
전반에 걸쳐

주름치료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.
시술은 마취연고를 바르고 하기 때문에
통증이 거의 없으며 얼굴 전체 시술시
15분 가량, 목 전체
시술시 10분 정도
소요된다. 보통 2~4주 간격으로
3회 시술받게 된다.

(김영길 성형외과 원장)

비수술적 성형 ‘히알루론산 시술’

히 피부와 관절, 연골 등에 많이 분포한다. 태어날
때부터 피부에 히알루론산이 있어서 맑고 투명한
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데, 나이가 들면서 히

김영길 성형외과의원
☎ 062-227-3777 무등극장 앞